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도, 성공스토리 또 작성

# 무모한 도전 우려 불식... 지속가능 전북 탈바꿈 추진체로

전북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분야의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도전 경성,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민선8기 전북도정의 운영방침이 도민의 열정을 한데 끌어모아 또 한번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며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전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추진체로 심을 수 있게 됐다.

20일 전북도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행정과 정치권 대학생에 이르는 도민들까지 한데 응집된 열정이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이다. 김관영 도지사도 이날 브리핑에서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지원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며 특화단지 유치 공을 도민들에게 돌렸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까지의 추진 경과

지난해 12월 산업부에서 국가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낼 당시만해도 전북은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이후 전북도의 고민은 깊었다.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전북은 특화단지를 신청하기 위한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

하지만 전북도는 특화단지 신청을 포기할 수는 없어 도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등이 전담팀(TF)을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신청 지자체는 예상대로 민천치 않은 지역이었다.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고 셀기업을 중심으로 완성형인 총복 오창 포스코와 포스텍 등과 함께 양극재로 특화된 포항, 삼성 SDI와 유니스트 등 기반을 갖춘 울산 등 경쟁 지역은 이미 이차전지 산업 성숙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전북 새만금은 매립이 진행중이며 이제 이차전지 기업이 들어오는 단계였다. 하지만 새만금은 대규모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우수 공급, 재생에너지로 탄소배출률 100%(CF100)·재생에너지 100%(RE100) 실현, 부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였다. 도는 새만금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썼다.

또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신(新)노사정 상생협약 등 기업 친화적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유치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

사의 13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신평탄이 쓰여졌다.

이어 4월에 LG화학·화유코발트의 132,000억원 투자, 6월에 이디엘(엔캠·중앙디앤엠)의 6,000억원 투자 등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규모로 보면 23개사 7조원 규모다 여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조만간 132,000억원의 투자에 예상되고 있다. 총 9조원 규모에 다다른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새만금의 강점과 기업유치만으로는 특화단지 평가에서 우위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분야가 약점으로 꼽혔다.

전북도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을 빠르고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4대 전략 14대 세부과제를 정하고 이차전지 기업 고도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협업 체계 마련 방안을 구체화했다.

무엇보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학교 글로벌 R&D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등 5대 상용화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개발과 핵심 인력양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체계를 갖췄다. 도내 6개 대학교 등과 이차전지 인력양성 협약을 맺고 현



전북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분야의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도전 경성,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민선8기 전북도정의 운영방침이 도민의 열정을 한데 끌어모아 또 한번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전북도청 제공>

### 기업 유치·연구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구축 목표 LG화학 등 최근 3년간 관련 기업 23개 7조원 투자 2028년까지 누적매출 따른 생산유발 효과 65조2000억

장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등과 협력 체계를 갖췄다.

지난 5월 18일 진행된 특화단지 발표 평가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발표자로 나서 전북의 산업육성 의지와 간절함을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발표평가 준비를 위해 실무진과 실전을 반복해하는 연습을 20회 이상 가졌다. 발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도지사의 노력과 호소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발표 평가 후 8월초 산업부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한지 증명할 자료를 요구해 오자 도는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일일이 연락을 취했다.

LG화학, 대우전자재료, 엔켐 등 선도기업에 전북과 함께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자고 설득하고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 계획 등 증빙자료를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도내 6개 대학교 등과 이차전지 인력양성 협약을 맺고 현

자며 수시로 평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평가위원과 부처 실무에 나섰다.

지자체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도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의회와 함께 이차전지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도비 15억원도 확보했다.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총 결집했다.

그 결과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중심지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단 7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빠르지만 체계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평가에 대응해 낸 값진 결과물이다.

#### ▲전북도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향후 계획

전북도는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으며, 4대 추진전략 14대 세부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구축 ▲공급·초격차 연계 인재 양성 ▲미래 그린 △기업지원 협업 체계 구축이다.

전북도는 14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기업 집적화를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과 연구기관도 결집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핵심인력 과 공정한, 현장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신속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산학연관 융합 협업체를 구축해 공동 연구 수행 기술공급, 인력양성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화단지 지정 기대 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유치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가속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전북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 유치(7조원 전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825,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예상 누적매출액(54조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5조2,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20만1,000명으로 예상되며, 전북의 전국 GRDP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전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화단지를 기회로 삼아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 ▲전북 이차전지 기업들의 기대와 바람

전북과 새만금이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소식을 접하고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규모 리사이클링 업체인 성일하이테크(주) 이강명 회장은 "새만금은 공학 향만, 철도가 인접해 국내외 접근성이 용이하며, 드넓은 입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 가치사슬을 고도화 해 기업간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며 "2024년에 이동원 제2공장 준공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 재처리와 사업을 확대해, 연간 40만 대 전기차를 공급가능한 Green material을 생산하고 세계적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해역으로 유명한 (주)엔켐 오정강 대표이사는 "전북이 세계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도 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주)엔켐 또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유지경쟁(有志 경쟁)의 자세로 임해 시장을 이끄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음극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우전자재료 임원지 대표는 "새만금이 특화단지 지정된 만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과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든든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배우전자재료는 이차전지 'Game Changer'로 불리는 실리온 음극재를 가장 앞서 상용화한 기업으로 새만금에서 제2, 제3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먹거리 발판”

### 도의회 “180만 도민과 함께 환영” 반겨

전북도의회가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정부의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1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이차전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과 정부 세종청사 앞 유치기원 운동, 국회 기자회견 및 유치결의

대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의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향후 100년 우리 전북 먹거리의 발판이자 산업·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무탄소에너지)·RE100(재생에너지)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춘 유일

한 지역이다"고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을 반겼다.

도의회는 이어 "특히 2024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창 열고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물 육성

### 김정수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타작물 재배 시행 등 규정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나섰다.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조례안'은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자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논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대비 0.4%(0.2kg) 감소했고, 1982년 소비량(112.9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쌀소비량이 급감했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2021년산 쌀 생산은 전년 대비 37만5천톤 증가(10.7%증가)하면서 작년 쌀 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88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수 의원은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애향본부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크게 환영"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도내 주요 단체들이 잇따라 축하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20일 최종 선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이차전지 산업은 현재는 취약하지만 미래를 위해 전북이 꼭

가야할 길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도민과 함께 성원을 왔다"며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이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의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정을 계기

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속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더불어 내무개발사업, 기업유치 등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시스



이명진 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 진안군의회, 2기 예결위원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이명진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명갑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제9대 2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동창욱 의원, 이미숙 의원, 손동규 의원, 이우라 의원까지 6명이다.

이명진 위원장은 "진안군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이루어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진 위원장은 "진안군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이루어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